

佛電力公社의 國民弘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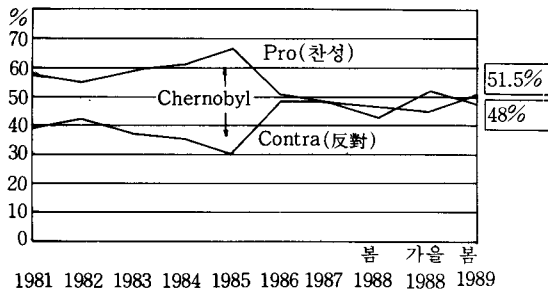
J. P. Chaussade <프랑스電力公社>

J. F. Bernard <프랑스電力公社>

프랑스에서는 현재 54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전 발전량의 75%를 공급하고 있으며, 원자력이 현재 및 장래의 중요한 에너지원임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체르노빌사고 이래 여론도 매우 유동적이 되어 지금까지의 신뢰를 이미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 그림은 한 여론조사의 예인데 최근에는 원자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여론조사를 통해 각 계층 사람들의 의견을 파악하고, 그 사람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고 확고히 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을 취하고 있다.

다음에 프랑스전력공사(EdF)의 홍보활동을 소개한다.



<그림> 원자력에 관한 프랑스 여론조사결과

一般大衆에 對한 커뮤니케이션活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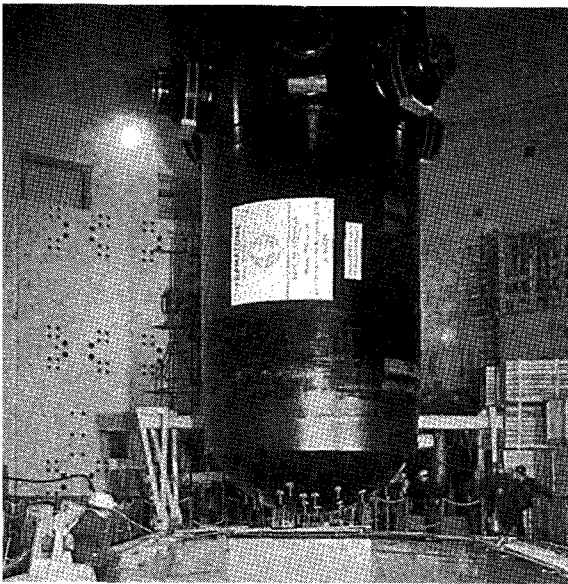
우리 활동의 기본적인 생각은 다른 그룹의 사람들과 만나 의견을 들어 그들의 불안에 대답하는 것인데, 사이트근방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활동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활동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① 시설견학의 추진 : 현재 연간 각 원자력 시설당 15,000~50,000명. 전국적으로는 30만명의 견학자를 수용하고 있다.
- ② 지역의 관청, 정치가, 공무원, 저널리스트와의 긴밀한 접촉 : 이런 사람들에게 플랜트의 상황과 발생한 사고를 정기적으로 통보하고 있다.

1981년 이래 1기의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한 각 지역에 지역정보위원회가 설치되었다(위원장은 지역의 정치가이며, 위원은 정치가, 각종 단체·조합인들). 이 위원회가 열리는 곳에서 일반인들의 질문, 그에 대한 원자력시설측에서의 충분한 대답이 나온다.

③ 의사에 대한 설명회 : 의사는 유력한 정보추진자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방사선의 영향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 전문가에 의한 설명회에 1988년 이래 약 5,000명이나 되는 의사의 참가가 있었다.

- ④ 교육기관의 교사에 대한 설명 : 교재의 제



공과 14세 이상의 학생에 대한 많은 견학회를 실시하고 있다. 이 견학은 전체의 40%나 된다.

⑤ 원자력발전소 “정보센터”의 이용 : 연중무휴인 이 정보센터에서는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생태학적인 면에 대한 교육정보가 제공된다. 이 경우 애니메이션모델, 게임, 비디오카세트, 비디오판, 마이크로프로세서 등을 견학자 자신이 작동시키는 참가형의 것이 매우 유효하다.

從業員에 對한 커뮤니케이션活動

내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외적인 커뮤니케이션은 表裏一體다. EdF에는 125,000명의 종업원이 있어서 일반대중에 대해 중요한 정보원이다.

종업원용으로 원자력의 경제성, 안전성, 폐기물, 환경에 대한 영향 등에 관한 광범한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리스트를 작성했다.

더욱이 24,000명의 운전원에 대해서는 사고시의 피폭방호에 관한 일반대중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도록 특별한 훈련을 실시했다. 이 훈련은 최종적으로는 전종업원에게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이것을 보완하여 원자력에 관한 문제를 다룬 기사를 실은 사내보를 종업원 뿐 아니라 퇴직된 사람들에게도 배포하고 있다.

危機的인 狀況의 豫防과 管理

커뮤니케이션정책에서는 항상 신뢰의 환경·분

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뭔가 새로운 것을 결정할 때라든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것만으로는 사회적 관계가 위험한 상황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을 예상해 몇가지의 준비, 대책을 수립해 놓고 있다.

① 계통적인 예방 : 신문이나 대중의 반응이 나올만한 어떤 종류의 결정을 할 때는 사전에 커뮤니케이션계획을 세워 놓는다. 이 방법은 예컨대 산로랑爐에 MOX연료를 처음으로 장전했을 때라든가, 슈퍼퍼닉스爐의 18개월 정지후 재스타트시에 유효했다.

② 되도록 정보를 공개한다 : 정보를 억제해 두면 시설의 안전성이 문제가 되었을 때 상황이 극적으로 발전하는 일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운전상의 사고에 대해서도 지역이나 전국적인 정보기관에 즉각 통보한다.

③ Minitel시스템에 의한 정보의 공개 : 현재 약 32,000만명의 Minitel시스템(전화와 접속한 작은 Videotex 터미널)소유자는 모든 원자력발전소의 운전상황을 이 시스템을 이용해 알 수 있다.

④ 환경에 대한 방사선측정결과와 공개 : 1989년 이래 모든 환경방사선측정데이터는 공개되어 선발전 대표자와 정보기관에 제공되고 있다.

정보전달상 “가장 곤란한 문제의 하나”는 일반대중의 지식수준과 우리가 설명하지 않으면 안되는 기술적 내용 사이의 갭이다. 그 갭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다.

i) 플랜트관리자와 외부담당자의 훈련 : 최근 수년간 EdF지역의 관리자와 외부담당자는 프레스, 라디오, 텔레비전 등에서 전문가에 의해 시청각표현의 테크닉훈련을 받고 있다. 이 훈련에서는 정보전달의 중요성을 인식시킴과 아울러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ii) 사고의 정도를 보다 잘 이해시키기 위해 지진의 Richter 스케일에 상응하는 Nuclear Incident 스케일이 에너지권에 의해 제정되었다.

⑤ 정보전달의 상시체제 : 사고 등은 야간이나 주말에 발생하는 나쁜 경향이 있으므로 프랑스전력공사의 본사프레스실과 원자력·화력발전부 정보팀의 교대근무체제가 취해져 정보기관에 관심이 있을 법한 정보를 되도록 빨리 제공하기로 하고 있다.

⑥ 긴급사태대응 : 이 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i) 기술조직과 ii) 정보전달조직을 갖고 있다. 정보전달은 즉각적으로 프레스나 대중의 질문에 신뢰할 수 있는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정보의 신뢰성은 주로 다음과 같은 조직간의 연휴에 관계되는 것이다.

기술진과 정보시스템, 현장과 파리의 프랑스전력공사 본사, 지방자치체와 원자력발전소(지방레벨), 산업성과 프랑스전력공사의 긴급대응조직(정부레벨).

그리고 긴급사태일 경우의 정부와 지방자치체

의 역할은 관계자간에 협의되어 있다.

結 論

① 원자력문제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은 끊임없는 노력의 문제다. 또 그것은 관계자의 반응이 심리적 또는 감정적인 영역에 속하는 미묘한 것이다.

② 공개성과 성실성, 나아가서는 대중과 원자력발전소 대표자의 인간적 관계의 함양이 중요하다.

③ 원자력에너지가 다른 에너지에 비해 가격면에서도, 공해면에서도 명백히 유리하다는 사실에 의거해 적극적인 PR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④ 이상 서술한 국내적인 여론에 관한 활동 이외에 우리는 유럽의 원자력발전회사와 협력하여 홍보활동을 국제적으로 확대시키려 하고 있다.

科學常識

오스트리아의 放射線

오스트리아라고 하면 음악의 도시 빈과 도나우강으로 잘 알려져 있다. 스위스와 함께 영세중립국이고 스위스에 뒤지지 않는 아름다운 산들을 갖고 있다.

빈에 이어 큰 도시 잘츠부르크는 모짜르트가 태어난 곳이다. 그리고 그 남쪽에 바드가스타인이라는 온천장이 있다. 이 온천은 세계에서 유수의 라돈온천으로 알려져 외국에서도 휴양객이 몰려오고 있다.

시내에 많은 온천욕장과 라돈흡입소가 있다. 유명한 곳은 산 중턱에 만들어진 터널식의 라돈요양소이다.

이 시설은 3층 건물로 탈의실과 커피숍, 사무실 등이 있고, 휴양객은 여기에서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소형 전차를 탄다. 전차는 터널속

을 달려 깊숙히 2km 이상이나 들어간다. 이 터널은 옛날에 골드러시시대에 금을 캐던 곳이다.

매우 높은 농도의 라돈이 분출되는 터널인데 터널 도중의 여러 곳에 작은 갈림길이 있고, 침대가 놓여져 요양자가 거기에서 휴식하도록 되어 있다. 온도가 40℃ 정도 되며, 습도가 80~90℃나 되므로 마치 사우나 목욕탕에 들어가 있는 것 같다.

터널내의 라돈농도는 공기 1m³당 10만 Bq이나 된다. 보통의 가옥내 농도가 1m³당 20~40Bq인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다.

이 나라에서는 류머티즘, 순환기질환 등 여러가지 병에 효과가 있다고 하여 이와 같은 라돈흡입시설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